

영화 복원으로 과거 영화와 다시 만난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홍콩귀환: 시네마 + 아방가르드' 섹션 상영작 공개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홍콩귀환: 시네마 + 아방가르드'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30일 영화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시네필 전주 섹션 내에서 진행되며, 대부분의 영화는 아시아 최초의 글로벌 현대 시각문화 미술관 M+ 홍콩의 복원 프로젝트와 아시아 아방가르드 영화 컬렉션 사업을 통해 4K로 복원됐다. M+ 홍콩은 저작권자 및 예술가와 협력해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을 지원했다.

상영작은 장편 4편과 단편 3편 등 총 7편으로, 1960~1980년대 홍콩 영화계의 다양한 독립예술영화를 소개한다.

장편으로는 홍콩 최초 아파트하우스 영화인 탕수위엔 감독의 <동부인>과 왕가위 감독의 멘토 담유민 감독 연출, 임정하 배우 주연의 <애상>이 포함됐다.

두 작품 모두 M+ 홍콩의 'M+ Restored' 프로젝트에 포함된 작품으로, 색감과 미장센을 통해 인물의 심리와 운명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또한 메리 스티븐 감독의 신작 <팔립프스트리트: 이름에 관한 이야기>와 초기작 <비단의 그림자>가 소개되며, 감독의 가족사와 정체성, 이주, 소속감 등을 탐구한다.

전위적 작품으로는 한국 유신정권 시기 실험 영화 <무제 77-A>, 대만 개념미술 대표작 <기능장애 No.3>, 필리핀 쿼영화 <혁명엔 노래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홍콩귀환: 시네마 + 아방가르드'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후렴처럼 돌아온다)가 포함돼 아시아 3개국 계열령 시기 예술가들의 저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성경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는 "귀중한 영화 복원과 소장품 개방을 지원한 M+ 홍콩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관객들이 과거 영화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콩귀환 섹션은 상영과 함께 M+ 홍콩 사별 큐레이터의 강의 및 영화 소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 및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김재훈 기자

'남원 춘향제' 스마트 홈페이지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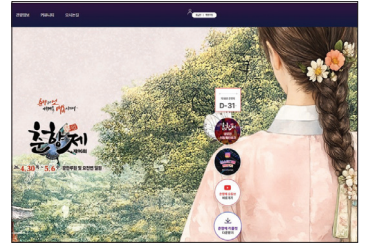
사용자 체험형 디자인 · 스마트 편의기능 대폭 강화

남원시는 '제96회 남원 춘향제'의 모든 정보를 한곳에 담은 공식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방문객들이 축제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현장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용자 체험형 디자인'과 '스마트 편의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홈페이지의 얼굴인 메인 포스터다. 접속하는 시간대에 따라 포스터의 비주얼이 자동으로 변하는 기술을 적용, 낮에는 남원의 화사한 봄 풍경을 담은 밝고 활기찬 포스터가, 밤에는 화려한 야경과 축제의 낭만이 어우러진 야간 포스터가 나타나 춘향제의 낮과 밤이 가진 서로 다른 매력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주차와 이동 문제 해결에 집중, 시 교통정보 어플로 실시간으로 변화는 교통정보를 전달하고, 시내 곳곳의 공영주차장과 축제 기간 특별 운영되



는 임시주차장 위치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또한 주요 거점과 축제장을 잇는 셔틀버스의 실시간 노선도 주요 거점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단순한 행사 나열에서 벗어나 방문객의 취향에 맞춘 4가지 테마코스(가족, 경기, 사랑, 전통)를 제안하며 선택의 폭을 넓혀, 방문객들은 자신의 일정과 기호에 맞춰 원하는 행사를 미리 '찍' 해두는 등 자신만의 최적화된 축제 동선을 계획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에 다채로운 공연예술 쏟아진다

완주문화재단 ·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각종 공모 선정으로 국비 2억4300만원 확보

(재)완주문화재단 ·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이사장 윤희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공모사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합회 주관 '2026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공모사업'에서 2억 3천만 원을 확보한 데 이어, 국가 유산청 주관 '2026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며 총 2억4,3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예술이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공모사업' 선정작인 연극 '체어, 테이블, 체어', 인형극 '손 없는 책시', 어린이 클래식 음악극 '콩깍지콩깍지 뮤직 트레인'과 '모차르트의 마법 바이올린', 어린이 전통뮤지컬 '배꼽잡는 슬로우', 미디어융합공연 'it SHOW',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등 총 7개 작품을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2026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오는 8월 '완주인형극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페스타는 군민들의 높은 인형극 수요를 반영해 기획되었으며, 특히 춘천인형극제와의 협력으로 염선된 8개 단체의 우수작과 완주 지역 인형극단의 작품을 다채롭게 엮어낸



'작은 인형극 축제'로 꾸며진다. 이 밖에도 전시, 체험,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완주의 여름을 풍성하게 채울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을 통해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2024년 창단한 '완주어린이취타대'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교육에 가함, 해금 등 국악기 교육을 병행해 '어린이국악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이미 여러 차례로부터 공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완주어린이취타대는 현재 초등학교 3~5학년생을 대상으로 신규 단원을 모집 중이며, 참여 희망자는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 JB문화공간, 봄을 여는 첫 클래식 공연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운영하는 전주 JB문화공간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클래식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북은행은 전주 JB문화공간에서 성기선 교수와 함께하는 '클래식 옛 더 벅크' 첫 번째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클래식 옛 더 벅크'는 세계적인 클래식 아티스트의 깊이 있는 연주와 이화여대 성기선 교수의 품격 있는 해설이 어우러진 JB문화공간의 대표 클래식 공연 프로그램이다.

지난 27일 저녁 열린 이번 공연에는 성기선 교수와 함께 클라리네티스트 나혜수, 피아니스트 주희선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날 연주자들은 모차르트의 트리오 내림마장조 '케겔슈타트' 1악장 안단테와 3악장 알레그레토,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2악장 아다지오, 슈만의 '베틀 이야기',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 등 봄날의 정취에 어울리는 부드럽고 서정적인 곡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성기선 교수의 명쾌한 해설은 클래식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연주자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더해진 음악 토크가 이어지며 아티스트와 관객이 음악으로 깊이 교감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기획과 해설, 비올라 연주까지 1인 3역을 소화한 성기선 교수는 "봄의 문을 활짝 여는 풍성한 음악회를 목표로 준비했다"며 "전주 시민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 이어질 다음 공연에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상근 기자

김제시,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김제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기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이번 확대 운영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국민들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닌 일상 속에서 보다 쉽고 가깝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전북, 고비삼살' 사업은 김제를 비롯한 도내 9개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4월에서 오는 12월까지 혹서기를 제외하고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 총 15회 운영할 예정이며, 4월은 문화가 있는 날 확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특별주간으로 지정해 매주 수요일마다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첫 시작을 알리는 4월 1일에는 지정선문화축제발진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과 소통에 나선다. 홍보부스에서 매주 수요일 확대 운영 내용을 안내하고 포토존, 토크쇼 등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제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름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제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름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